

데스크칼럼

‘적토마의 해’ 병오년, 경제 위기 대전환 골든타임

장승기



산업부장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질주와 도약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다. 병오년은 60갑자 중 43번째다. 천간(天干)인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지자(地支)인 오(午)는 말을 상징한다. 이 때문에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또는 ‘적토마(赤兔馬)의 해’로 불린다. 붉은색은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변화를 상징한다. 말은 속도와 진취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나타낸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된 병오년은 개인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

또 조직이나 사회적으로는 기준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변화와 에너지 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2026년이 붉은 말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우리 곁에 왔지만, ‘새해’라고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기에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우리 경제는 극한의 불확실성과 마주했다. 비상계업 종격이 한창 어떤 지난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추락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관세 충격’의 여파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 미만의 ‘성장 쇼크’를 겪은 한국 경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

은 싸늘하다. 새해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5.4를 기록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 (99.1) 아래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BSI 조사 결과도 ‘77’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밟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기업들의 경기 전망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고물가가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렵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요 경제 단체들은 새해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합의 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제도 올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황금빛 대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경부축 중심의 고도성

장기 동안 광주·전남은 ‘아껴둔 땅’으로 불리며 산업화의 변두리에 머물렀다. 비호남 출신들이 잇따라 정권을 잡으면서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이 지속되면서 호남의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거쳐 이제명 정부 탄생에 압도적인 몫표를 안겨준 광주·전남은 올해를 기점으로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는 기회를 맞고 있다. 광주·전남이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핵심 실험장이자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AX(AI 전환) 실증밸리, 신재생 에너지 등 국가 핵심 과제들이 광주·전남지역에 유치됐다. 삼성·현대차, SK,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광주와 전남은 이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 무대로 떠올랐다. 광주·전남이 대변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초광역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행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가 시작되는 2월 5·18영광을 앞에서 대통합 추진을 공동으로 선언하면서 행정 통합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한뿌리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제명 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의 기회를 맞았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자강봉식(自強不息)의 자세로 멈추지 않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적토마가 춤번지를 일으키며 대지를 박차고 나가듯, 우리도 낡은 관습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붉은 말의 힘찬 기운과 함께 희망찬 2026년을 시작하자.

기고

농업·농촌·농업인이 웃는 2026년 되길

정성욱



목포농협 용해지점장

새롭게 각오를 다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5년이 지났다. 시간이 느리게 가길 바랐지만, 역시 숨 고를 틈 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를 돌 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익숙한 풍경 중 하나다.

2025년의 농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혁신과 협력을 통해 할로를 모색하며 끊임하게 버텨왔다.

2025년 농업 생산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 상승이 농가소득을 견인하면서,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5435만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불금 확대, 농외소득 증가, 유기 하락에 따른 경영비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농가 인구는 200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농업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폭염에 발생은 생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농업계는 재해보험 확대, 전략작물직물제 강화, 생산 안정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램과 스마트팜 기술 도입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으로는 곡물 수급 불안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량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농업 개발과 수출 확대 전략을 병행하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재생 또한 중요한 화두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다.

많은 기관들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는 힘이 바로 농업의 저력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가 핵심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제주전해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 지수를 높이는 목표로 한다.

둘째, 농촌 소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주민수당제도’와 ‘햇빛연금’이다. 농어촌 주민수당은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햇빛연금은 영농형 대여방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자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넷째, 농촌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빙집 정비와 활용,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인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연재해가 닥쳐도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내며, 5000만 국민의 건강한 식탁과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우리 사회의 희망의 씨앗이다. 농사는 요청이 아닌 흘린 땀방울에 비례한 결과만이 수확하기에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오년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해라고 한다. 2026년에는 농업인의 웃음 속에 우리 농업과 농촌 현장에도 다시 활활이 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보 산업이며, 농촌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근간이다. 농업인이 웃을 때 국민도 웃을 수 있고, 농촌이 살아날 때 나라 전체가 살아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주는 열정과 도전의 기운이 농업·농촌·농업인에게도 스며들어, 힘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 선수단의 움직임은 유기적이고, 서로를 믿는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격차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뒷심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었다.

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걸까. 2라운드 세 번째 경기인 정관장전 패배 이후로 3라운드 다섯 번째 한국 도로공사전까지 9번을 연달아 졌다. 초반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기력함만 가득했다. 다행히 지난해 마지막 경기인 GS칼텍스전에서는 승리하며 10연패는 면했으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나는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 AI페퍼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패배의식을 펼쳐내는 것이다. 지고 있더라도 언제든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피나는 훈련과 서로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AI페퍼스가 새해에는 ‘워닝 멘탈리티’를 다시 장착하고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사설

광주·전남 지역경제 올해 회복세 보일까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한해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긍정한 반응보다는 완만한 회복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 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력 산업의 업계 상황이 개선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세를 이어오던 지역경제가 하반기 들어 일부 제조업의 매출이 크게 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 이같은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자동차와 전기장비, 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이 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지역 미래성장 동력인 인공지능과 신에너지 산업 육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출생기본소득 개편 등 다양한 민생 안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회복을 제감하기에는 다소 빠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게 있다.

전통 제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에 의존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지역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인 건설 경기 위축과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만 2000~1만 3000세대가 공급되는 등 입주량 증가는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도 현재 조선업을 제외한 주요 산업에서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여기에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자치단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경변화로 환경부는 환경부는 환경부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환경부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올해 지역경제는 변화의 길임길에 서 있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를 고집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했던 시점이다.

전남 말(午) 관련 지명 ‘전국 최다’인 이유

전남은 ‘말(午)’ 관련 지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전국에 고시된 지명 10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말 관련 지명이 820여 곳 있는데 이중 26%인 216개가 전남이라는 것이다.

주, 소, 호랑이 등 12개의 동물을 뜻하는 12지중 순서상 일곱번째인 말은 한자로는 ‘낮 오(午)’로 표현하는데 시간으로는 하루 중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오시(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가리킨다. 이들 중 가장 씩씩하고 역동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불로 여기고 있으며 민속학에서는 액운을 막고 전진하는 힘을 상징한다.

전남 말 지명은 마을이 128곳으로 가장 많고 석 44곳, 산 23곳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32곳, 진도군·완도군·해남군이 각각 14곳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고성군은 3곳밖에 없다고 한다.

전에 말 지명이 유독 많은 것은 예전부터 가족 관리가 편리해 말 목장이 많이 설치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설제로 신안·진도·완도 등은 전해의 올타리인 바다로 둘러싸여 조선 시대 말을 기르기 위해 정부가 죽조된 들판 성과인 ‘복장성’이 곳곳에 설치될 정도로 목축문화의 거점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말이 농경사회에서 풍년과 번창,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즉 농도인 전남에서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수적인 의미를 담아 말의 형상을 닮은 마을이나 들판, 산 등에는 말 관련 지명을 붙였다는 것이다.

마을 지명이 말발굽을 닮은 나주시 성북동의 마제촌, 달리는 말 모양인 담양군 월산면의 ‘도마산(跳馬山)’은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해서 불여진 우안군 무안읍의 하마거리, 말 걸음을 시켰다는 보성군 노동면 ‘말고리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다시 말은 전남에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길을 열고 터를 정하는 신성한 존재였다는 얘기다.

병오년 새해, 세상을 짚고 있는 말의 기세처럼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취재수첩

AI페퍼스, 패배의식 벗고 비상하길

송하종

문화체육부 기자



‘올해는 다르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매년 다짐했던 말이다. AI페퍼스는 2021-2022 시즌부터 V리그에 합류한 뒤 그동안 승점자판기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021-2